

탐의 진화

⑩ 앙코르의 유적(2)

16세기 초기에 포르투갈 난민들은 네델란드 군인들에 의해서 수마트라에서 쫓겨나 캄보디아의 수용소에 거주하며 앙코르지역의 유적을 답사할 수 있었다. 이시기에는 중국, 일본, 아라비아, 스페인 등의 많은 상인들이 캄보디아에 거주하여 앙코르의 유적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앙코르의 유적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은 포르투갈의 작가였던 '디에고 데 쿠투르(Diego de Couto)'의 기록에 의해서이다.

그의 기록은 캄보디아의 왕이 코끼리를 타고 폐허가 된 옛 수도에 사냥을 했다는 내용이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앙코르를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작가였다. 이 기록은 카푸친 교회의 수도사였던 '안토니오 데 막달레나(Antonio de Magdalena)'가 1585년에 앙코르를 방문한 이야기를 듣고 재구성하여 기록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앙코르에 대한 기록은 1863년에 프랑스의 동식물학자이며, 탐험가인 '앙리 무어(Henri Mouhot)'에 의해서이다. 그는 데생과 수채화에 능하여 앙코르의 유적을 프랑스 잡지 '세계회유'에 실었고 단행본으로도 출판하여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앙코르의 유적은 서양인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앙코르의 유적이 외부세계에 알려진 것은 이미 13세기에 중국 원나라의 주달판에 의해서였다. 그는 원나라의 사신으로 중국의 절강성을 출발하여 매콩강과 툰레삼강을 경유하여 앙코르에 근 1년간(1296-1297) 체류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진랍풍토기(眞臘風土記)'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현존하는 이 책을 통하여 그 당시 앙코르의 유적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호의 '앙코르'에 이어 '바이온 탐'과 '타프롬 사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바이온(Bayon)탐 (사진1)

바이온탐은 대승불교, 힌두교, 소승불교의 복합적 유적이다. 앙코르 톰의 중앙 부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는 '아름답다'는 의미이고, 은은 '탐'을 의미한다. 앙코르 유적 중에 앙코르의 명성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고, 아름답게 조성되어있는 불탑형식의 사원이다.

12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건축이 변경되고 증축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 바이온은 대승불교 신자인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하여 국가적 불사로 조성되었다. 지금의 베트남인 참파(Champa)의 공격으로부터 크메르를 구한 자야바르만 7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앙코르 톰을 신도시로 정하고 그 가운데 바이온 탐을 조성한 것이다. 자야바르만 7세가 죽자 이 불교 사원은 힌두교와 소승불교 사원으로 수차례 건축이 변경되었다.

이 바이온 탐은 정사각형의 3층탑으로 2개의 회랑이 있으며, 외부 회랑은 한 변이 약 150m에 달하여 전체 594m이며, 내부 회랑은 전체 둘레가 300m이다.

바이온 탐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탑을 위시하여, 탑의 4면에 조각되고 있는 사방보살상(사진2)이다. 보살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관세음보살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식된 갑옷을 입고 있어, 자야바르만 7세를 신격화하여 표현하였다는 설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고고학자 '조지코데(George Coedes)'는 '신왕일치' 사상으로 자야바르만 7세 자신을 관세음보살과 동일시하여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처음 조성할 당시에는 54개의 사방보살상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37개만 남아 있으며, 보살상의 높이는 1.7~2.2m 정도로 크기가 다양하다.

탑의 최고 높이는 43m이며, 1층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출입문이 있다. 그 중에서 동문 양쪽에는 연못이 있는 테라스가 있다.

외부 회랑은 높이 3m, 길이는 각 35m로 8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문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며 감상하게 되어 있다.

바이온탐, 높이 43m 불탑형식 사원

자야바르만 7세, 국가적불사로 조성

대승·소승불교 힌두교 복합유물

중앙 탑 중심 4면에 사방보살상

내부회랑 160m에 다양한 조각

앙코르 역사 한편의 드라마로

타프롬사원 '브라만의 조상' 이란 뜻

자야바르만 7세, 모친 극락왕생 위해

1000m×600m 안에 39개 탑 등 조성

중심건물에 부처님 유성출가상 조각

한몸인 나무 보살피야 사원 유지

우요불탑공덕경(右繞佛塔功德經)에 의하면, 지혜 제일 사리불이 부처님께 탑을 오른쪽으로 도는 공덕에 대하여 계승으로 청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불탑을 오른쪽으로 돌고 얻는 모든 공덕을 내가 이제 조금 말할 터이니 너희들 모두 잘 들어라! 일체의 하늘과 용과 야차와 귀신들이 모두 친근하고 공양함은 불탑을 오른쪽으로 돈 까닭이 아니라, 태어나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여덟 가지 어려움(八苦) 멀리 떠나서 언제나 어려움 없는 곳에 태어나는 것은 불탑을 오른쪽으로 돈 까닭이 아니라, 일체의 태어나는 곳마다 생각하고 지혜를 잃지 않고서 미묘한 색상을 추구하는 것 불탑을 오른쪽으로 돈 까닭이 아니라.....(중략)..... 모든 부처님 탑묘(塔廟) 오른쪽으로 돌아 얻는 여러 가지 공덕(功德)을 내가 이제 들은 대로 간략히 말했으나 어찌 다하리." <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중단>

이처럼 탑을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 원칙과 공덕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각의 내용을 배열한 것이다.

내부의 회랑은 약 160m 정도이고, 정면은 동쪽을



바이온탐은 대승불교, 힌두교, 소승불교의 복합적 유적이다. 앙코르 톰의 중앙 부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는 '아름답다'는 의미이고, 은은 '탐'을 의미한다.



바이온 탐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탑을 위시하여, 탑의 4면에 조각되고 있는 사방보살상이다.



타프롬을 휘감고 있는 비단목화나무 뿌리.



바이온탐 내부 회랑. 자야바르만7세가 코끼리를 타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



바이온탐 내부 회랑. 승전을 기원하는 제물에 버쳐질 물소의 모습.



바이온탐 내부 회랑. 참파군을 무찌르는 크메르군의 모습.

향하고 있으며, 외부회랑처럼 섬세하고 다양한 내용의 조각이 있다. 조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앙코르의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로 감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177년 베트남[참파]의 침략으로 앙코르 톰을 점령당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부터 1181년 자야바르만 7세가 앙코르를 탈환하기 위하여 벌였던 다양한 형태의 전투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전투장면은 땅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물위에서 싸우는 모습도 보이며, 그 당시 크메르와 동맹을 맺었던 중국의 원정부대의 출정모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쟁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온 건설 당시의 시장의 모습, 등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그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3~5)

제2층에는 16개의 사방불탑이 있고, 제3층의 중앙에는 과거에 힌두교 신앙이 반영된 유물이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상이 놓여 있다.

3) 타프롬(Ta Prohm)

타 프롬은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에 봉헌하기 위하여 1186년에 조성한 사원이다. 절대군주가 되었음에도 아버지가 크

사트리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왕은 브라만인 어머니의 권위에 의존하고자 동서 1,000m, 남북 600m의 큰 사원을 건설한 것이다.

'브라만의 조상'이라는 의미의 타프롬은 회랑과 코너의 탑을 중심으로 많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39개의 탑, 566개의 석주주춧돌, 288개의 벽돌주춧돌이 있으며, 왕의 어머니상과 260개의 신상이 있다. 각 건물내부는 하얀 회로 덮고 루비와 사파이어 등 수 많은 보석들로 장엄했다고 하나, 지금은 보석이 박혀 있던 자리에는 모두가 훼손되어 주먹만 한 구멍만 파여 있다.

중앙의 중심 건물 동쪽에는 부처님의 생애 중 유성출가상의 장면이 조각되어 참배객들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타프롬은 무엇보다도 두 종류의 나무뿌리가 관건이다.

흔히 용수(溶樹)라고 부르는 두 종류의 나무는 비단목화나무(Silk-cotton tree)와 목조르는 무화과(Strangler fig)나무이다.

비단목화나무는 새들이 씨를 먹고 배설하면, 그 씨가 사원의 돌 사이로 들어가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나무뿌리가 굵어지면서 썩기처

럼 돌덩이를 벌려 나가 마치 건축물과 뒤엉켜 하나가 된다. (사진6)

목조르는 무화과는 반얀 트리[Banyan: Banian tree]의 일종인데 숙주나무의 틈에서 씨앗이 발아할 때 착생(着生) 식물로 일생을 시작하는 무화과 종류의 식물이다. 다른 무화과 종과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씨앗은 열매를 먹는 새들에 의해서 전체 숲에 퍼지게 되는 데, 싹이 틀 때 뿌리를 땅으로 향하게 하고, 이것들이 숙주나무의 부분을 덮어서 큰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서 '목조르는 무화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타프롬 사원은 이 두 나무의 굵은 뿌리들이 벽을 이리저리 휘감아 갖가지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여 참배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나무가 죽게 되거나 더욱 자라게 되면 사원은 붕괴되고 만다. 그래서 영양분을 적절히 조절하여 나무가 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또 다른 과제인 것이다.



글·우인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대만 불광사 공승법회 5일 8월 16일 출발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6월 2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월 11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8월 20일, 9월 16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7월 10일 출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3일, 7월 17일, 8월 27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동방의 정원 양곤/바간/달라 5일 7월 16일, 8월 6일, 8월 19일 출발

불탑과 호수 양곤/바간/헤호 6일 7월 9일, 7월 21일, 7월 30일 출발

황 금 불 탑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7월 19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14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퀴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여행사행

① 모든경비 포함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